

“신재생에너지 메카 전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돼야”

전남도, 내년 상반기 정부 공모 앞두고 특화지역 선점 박차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등 전력다소비 기업 유치 노력도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메카이자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대학 등이 집적해 있는 전남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선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원이 풍부해 RE 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탄소중립 등의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에너지 수요가 큰 기업들을 유치해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8일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예정된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앞두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한다는 개념으로, 중앙집중적 에너지 수요공급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에너지 자립’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분산에너지가 도입되면 에너지를 인근 수요처에 바로 공급해 소비시킴으로써 송전 비용을 낮추고, 분산에너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특별법에 근거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의 직접거래 등 혁신적 제도가 가능해진다. 이는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지자체와 기업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전력 자급률이 높아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구현하는 데 유리해 정부가 구상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롤 모델이자 최적지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특별법 제정

과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용역과 산학 협업을 통해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도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연구에 착수해 전남의 다양한 에너지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6개 시군 7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국회 포럼’을 개최해 범정부 공감대를 확보했다. 지난 21일에는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남형 분산특화지역 비즈니스 모델’ 성공을 위한 각계 의견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인여에너지를 타 지역으로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것”을, 김명도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설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창순 전남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은 “수소, LNG, 바이오 등 다양한 에너지를 접목한 다변화된 분산에너지 모델 창출”을, 이재형 목포대 교수는 “전력다소비업종인 첨단산업을 전력계통영향평가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각각 제안했다.

전남도는 충분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화지역 공모에 맞춰 전남에 가장 많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최종 선정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도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분권 실현, 균형발전, 인구소멸 극복의 핵심 열쇠”라며 “전남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전남으로 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 가득 김장 나눔

28일 광주 북구자원봉사센터 앞마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할 배추 김치 2500포기를 김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시, 중기 맞춤형 지원...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두 토끼 잡는다

‘성장사다리’ 참여 기업과 정책소품...맞춤형 지원책 점점 등

광주시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인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힘을 보태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과 정책소품을 갖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소품에는 이성오 ㈜씨아이에스케미칼 대표, 서인명 ㈜금명하이텍 대표, 김남진 ㈜아이시스 대표, 이정훈 주식회사 찬솔 대표, 고미아 ㈜위치스 대표, 한상진 ㈜동진기업 이사, 김두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팀장, 이철승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프리-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지역성장사다리 점프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초광역선도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플러스(+)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단계별로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융합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프리-명품강소기업은 연구개발 지원·시제품 제작 등 초기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명품강소기업은 제품 고급화·인증지원 등 지역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순수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성장사다리 점프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명품강소기업을 졸업(예정)한 기업 중 ‘주력산업’ 기업을 지원하며, 지역혁신선도기업 지원 사업은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선도기업 육성 목표로 하고 있다. 초광역선도기업은 혁신선도기업 중 지

역산업 생태계 및 공급망을 연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글로벌강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 지원하고, 월드클래스플러스는 중견 및 후보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비중이 낮은 기업의 수출을 확장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들은 이날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이 계단을 오르듯이 단계별로 구성돼 있어 기업의 도전 의지를 북돋운다”면서 “지역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주년’ 디자인비엔날레...참여 프로그램 강화

주제 선정·마스터플랜 수립 시동 총감독에 최수신 미국 SCAD교수

광주시가 내년 9월 개막 예정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창설 20주년을 맞아 미래 디자인 트렌드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디자인·예술·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디자인 비엔날레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2025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에 최수신 미국 SCAD(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교수를 위촉하고 주제 선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행사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학계, 산업계

관계자와 협력을 확대하고, 시민과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했던 행사를 ‘2025년 디자인비엔날레’부터는 좀 더 전문성을 갖춘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직접 맡아 추진한다.

신임 최수신 총감독은 “디자인 에센스”에서 끝나는 디자인비엔날레는 의미가 없다. 전시를 본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삶에 임팩트를 주는 디자인비엔날레를 선보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2개월여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관광재단, 700억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추진

목포·나주·무안·영광·함평 등 소도시 여행 전문 관리단 설치

목포·나주·무안·영광·함평 등에 ‘소도시 여행 권역별 전문사업 관리단’ (이하 관리단)이 설치된다. 관리단은 중장기 관광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관광산업 주체들과 협업체 특화 관광 콘텐츠를 기획·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2027년까지 전남 22개 시·군 전체에 관리단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남관광재단은 “향후 10년간 추진하는 남부

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24개 사업 7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사업이 소도시 여행권역 육성사업이다. 5개 시·도 협력에 기반한 공동진흥사업 중 하나로 2027년까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서 검토된 1권역 목포·나주·무안·영광·함평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소도시 여행 활성화와 지역 관광 생태계가 주축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진흥 거버넌스 육성을 목표로 소도시여행 권역별 전문사업 관리단을 선정해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관리단은 지역 내 다양한 관광 관련 주체들과 협업해 특화 상품 등 관광 콘텐츠를 기획 및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광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최근 5년 내 정부 또는 지자체 등과 관광 및 문화 콘텐츠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전남관광재단은 섬진강과 지리산을 기반으로 웰니스, 위케이션 등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는 지원사업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세상에 행복을 **물** 놓는다

마음놓고 부모가 되어도 좋은 대한민국 행복을 완성하는 일터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하겠습니다